

시로 읽는 성보순례
자신만만 위풍당당
국보 제100호 남계원칠층석탑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라.
「중부경전」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9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1호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부처님 교화공원' 최초 조성

화성 신흥사 10월 21일 점안식 및 준공법회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부처님의 중생 교화 사례. 그 중 유명한 13장면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도량이 문을 열었다.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10월 21일 초전법륜 야외법당에서 '부처님 교화공원' 조성불사 점안식과 준공식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신흥사 옆의 야산을 공원화 한 '부처님 교화공원'은 2008년 시작해 최근 조성을 마친 대작 불사로 규모만 18,500㎡(5600평)에 이른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부처님 초전 법륜부터 제1차 경전 결집까지 총 13장면을 장엄됐다. 13개 일화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11번 등장하며 존자 7분, 교화를 받는 중생 30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처님 팔상성도, 〈부모은중경〉도 석판으로 꾸며졌다. 석재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화강암과 황등석을 썼고, 조성 기간도 2년에 이른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시각적 조형물만 아니라 청각적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조성된 석상 앞 안내판에 서면 음향센서가 자동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전의 법문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온다. 법문 녹음은 유명 성우인 박일 씨가 맡았다.

이 같은 시·청각의 조화는 40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아이디어다.

건립 취지에 대해 성일 스님은 "요즘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예전과는 달리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도 3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며 "갇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교화공원 건립이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성된 '부처님 교화공원'은 규모만큼이나 재원도 44억원이 투입된 대작불사다. 공사 전반의 설계와 공사 진행, 감리는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에서 맡았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는 친환경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태양광을 이용한 인등, 조명등을 설치했고 공원의 길은 황토로 조성했다. 또한 부처님께 올리는 헌화의 의미를 담아 봄, 여름, 가을 야생화로 조경했다.

이에 대해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장은 "사찰의 경관과 최대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원을 설계했다"며 "친환경적인 태양광 에너지와 황토를 사용해 부처님의 생명평화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교화 일화 13개 석상 조성
4년여 불사… 44억원 투입
'친환경' 태양광 조명 사용

이어 "공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1일 열린 준공법회에서는 점안식을 비롯해 ▷전도부촉 시연 ▷사찰음식 시연회 ▷마가 스님 자비 명상 등이 진행됐다.

이와함께 성일 스님은 관련내용을 담은 책 〈붓다 콘서트〉를 발간해 법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화성 신흥사가 5600평 규모로 조성한 '부처님 교화공원'에는 부처님 교화 일대기 중 13개의 주요 장면을 석상으로 꾸몄다. 또한 청각 자료를 활용해 당시 상황을 경전의 법문과 음악으로 전한다. 사진은 부처님이 어린 라훌라를 교화하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관련 기사 5면

세종신도시 불교 포교 '준비 중'

조계종, 종교용지 협의 중… 거점 사찰 활용 계획

올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조계종 신도시 포교 거점 사찰이 생길 전망이다.

본지 확인 결과 조계종 총무원은 올해 초 서울 일선 사찰이 소유한 세종시 종교용지를 양도 받아 현재 사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이 양도 받은 부지는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분류되며, 부지 선정에 있어 1순위를 배정받았다. 부지 규모는 2,145㎡(650평)이다. 현재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분양 공고된 종교용지는 총 41필지로 총 13필지가 분양됐다.

조계종 종책특보 신도시 담당 허운 스님은 "현 집행부는 시작부터 신도시 포교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현재 나온 세종시 종교용지는 사찰에게는 맞지 않아 1, 2차 분양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세종시 입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 세밀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도시 포교는 급히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천㎡규모 협의양도 부지
"랜드마크 사찰로 키울 것"
정부, 종교부지 지정화 필요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인근 지역 교구본사들과 협의를 거쳐 종단 차원의 포교 거점 사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할 방침이다.

허운 스님은 "개신교식 물량공세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최적의 부지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거점 사찰을 여법하게 건립할 계획"이라며 "송파 신도시 등의 종교용지도 분양을 준비 중에 있다. 신도시 포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만큼 종단 집행부도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지 선정에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토지들이 대부분 사찰과는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공개 입찰로 인해 일부 종교가 부지를 독식하는 폐해가 있어서다. 그래서 신도시 종교부지를 도시 계획에 맞춰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재무국장 설암 스님은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그런 와중에 이를 경쟁체제로 내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시 계획에 맞춰 모든 종교가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포교·신행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각황전 방화용의자 검거

제적된 前 태고종 소속 승려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다. 구례경찰서는 화엄사 각황전에 불을 내려 한 승려 이모씨(45)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쯤 각황전 뒤쪽 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법명이 현각으로, 강원 인제군을 주소로 두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태고종 소속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남 순천에서 휘발유 4ℓ를 사 소주병에 담아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떳떳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한 10월 4일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의 한 암자에 들어가 탱화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초대합니다

창간 18주년 산사의 별미 체험

불교의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은 소박한 재료로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건강식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진관사와 공동으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며 시식할 수 있는 '산사의 별미 체험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장소와 실습 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창간 18주년에 맞춰 18분만 선착순으로 초대합니다. 사찰기행을 겸한 이번 행사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 시 : 10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 진관사
▲내 용 : 사찰음식 실습 및 별미 체험
▲접수마감 : 10월 24일(선착순 마감)
▲신청접수 : (02)2004-8212
▲참 가 비 : 3만원
▲계 좌 : 국민은행 245-25-0001-46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911호 INDEX

종합 2·3
총림지정 어떻게 봐야하나
템플스테이 10년 향후 계획
평양에 불교회관 건립추진
불산 사태 구미 현장 위문

시방세계 5
화성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



화엄 만다라 16·17
박광서 서강대 교수



현대불교 법공양
ARS 후원
060-700-1080

"무료 불교CD, 알고보니 목사 설교"

봉은사 일요법회서 개신교인 배포해 '충격'

서울 봉은사 경내에서 목사 설교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선교행위가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홍보물은 불교CD로 가장한 개신교 홍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봉은사는 "10월 14일 오전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봉은사 진여문 안팎에서 무료 불교CD로 위장한 목사 설교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처님 계신 곳 좋은 만남'이라고 붙여진 이 홍보물 겉모습은 영락없는 불교CD. 종무원들과 불자들도 의심없이 이를 받았다.

특히 이날 봉은사는 개산대제를 앞두고 각종 행사로 분주한 상황이었다. CD에는 신성종 충현교회 전 담임목사의 설교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봉은사 종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을 때는 이미 배포자는 사라진 뒤였다.

설교 내용도 충격적이다. 신성종 목사는 설교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모나 친척들에게 전도하라"며 "지옥에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으며, 공자님도 지옥에 있었다. 유명한 스님 등 소위 도를 닦았던 성직자들도 많이 있다. 종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존경을 받은 교황과 신부, 승려, 어떤 목사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봉은사 측은 "2010년 봉은사 땅밟기 사건에 이어 이런 지능적인 선교활동이 펼쳐져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 선교활동에 대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수험생들에게



진실한 자기의 자성(自性) 부처님이 바로 자기의 보디가드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항상 나한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무슨 고난이 있을 때도 그 깊은 속마음에 한번 굴려서 내놓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침착해지고 겸손해지고 경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굴리느냐
'한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꿔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야' 하고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세요.
주인공 보디가드가 바로 진실한 자기의 자성(自性) 부처님입니다."

- 대행 큰스님 법어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